

시민강좌

2024

고종세 전쟁
따라잡기

CITIZEN
LECTUR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시민강좌

고종세 전쟁
따라잡기

20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PREFACE

2024
시민강좌
고종세전쟁
따라잡기



PREFACE 발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6·25전쟁 중인 1950년 국방부 정훈국의 ‘전사 편찬회’로 발족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내 유일의 군사사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자료수집, 군사사 연구성과물 발간 및 보급,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군사사 연구 저변확대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역사의식 제고 및 안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실시된 군사사 시민강좌가 올해(2024년)로 제2회를 맞이하였습니다.

2024년 시민강좌는 ‘고종세 전쟁 따라잡기’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5월 29일, 6월 5일, 6월 12일 3차례에 걸쳐 ‘고대 세계전쟁이란’, ‘우리가 모르는 나당전쟁 이야기’, ‘전쟁의 재현’이라는 주제로 명망있는 역사 학자와 역사소설가를 모시고 강연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시민강좌는 많은 분들의 참석과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시민강좌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울러 강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과도 강연내용을 함께 하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사편찬연구소는 군사사, 전쟁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시민강좌를 통해 군장병은 물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오 성 대

CONTENTS

2024
시민강좌
고종세 전경
따라잡기



CONTENTS 목 차

강연 01

고대 세계전쟁이란? • 07

권중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강연 02

우리가 모르는 나당전쟁 이야기 • 25

이상훈 육군사관학교 교수

강연 03

고려는 최강대국 거란을 어떻게 물리쳤나? • 39

길승수 역사소설가

고대 세계전쟁이란?

: 춘추전국시대의 전쟁



권중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중앙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오랜 시간 학생들과 함께하다 퇴직 후 현재는 삼화고전연구소를 열고 소장을 맡고 있다. 타이완 국립정치대학에서 『자치통감이 중국과 한국의 학술에 미친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 수여하고, 중국 근세사상사를 주 연구로 삼고 있다. 저서로는 『중국근세사상사연구』, 『자치통감사론강의』, 『중국분열, 위진남북조시대를 위한 변명』, 『황제뽑기』, 『역사학연구방법론』 등이 있고, 역주로는 『자치통감』과 『속자치통감』 『자치통감』 총 294, 『자치통감산책』, 『춘철활인』 등 다수가 있다.

강연 01

고대 세계전쟁이란? : 춘추전국시대의 전쟁

권중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1. 전쟁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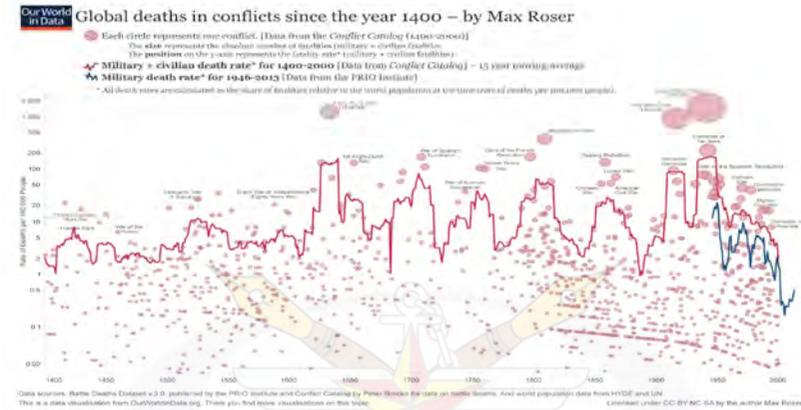
전쟁(戰爭)은 국가, 정권(政權), 족군(族群) 혹은 준 용병(傭兵)이나 민병(民兵) 같은 준(準) 군사 조직 사이에서 일어난 밀집적(密集的)인 무장(武裝) 충돌(衝突)을 말한다. 그 특징은 극도의 폭력과 침략 그리고 파괴를 가져오며 인명(人命)을 사상(死傷)시키는 것이며 이 행위의 목표는 상대방을 복종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란 문화의 표현이고 문화 형태를 결정하는 인소(因素)이며 문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전쟁은 총력전이어서 단순한 군인 간 혹은 군부대 간의 전투에 국한(局限)하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교전(交戰)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배경에는 그 교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체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는 참혹한 파괴와 대량의 인명 살상을 가져온다. 과거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파괴를 가져왔고, 얼마나 많은

인명의 살상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잡기 어렵지만, 예전대 제2차 대전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6,000만 명에서 8,500만 명으로 추산할 만큼 그 사상자의 수는 막대하다.

지구상에서 벌어진 전쟁의 빈도와 사망자를 나타내는 도표를 보자.



이 도표로 보건대 인류 역사에서 전쟁과 그로 인한 인명의 손실과 물질적 파괴는 없었던 적이 거의 없었고, 그 피해도 막대하다.

이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서의 전쟁 빈도(頻度)도 이에 못지않다. 송 건국(960년) 이전에 일어났던 전쟁의 총계를 2,045회라고 하며, 춘추시대 이전에 일어났던 전쟁은 50회로 보고 있다. 그런데 그 이후 전쟁은 빈번해져서 춘추시대(BC770~BC476) 295년 동안 395회의 전쟁이 있었고, 전국시대(BC475~255) 255년 동안 230회의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통계하고 있다. 그러므로 춘추 전국시대 550년간에 전쟁은 625회가 일어나서 연간 평균 1.37회가 일어난 셈이다. 그리고 진(秦)의 통일에서 5대 말(BC221~959)까지 1,180년간 일어난 전쟁의 숫자는 1,370회로 연평균 1.16회였다. 그

러므로 춘추전국시대에는 평균보다 대략 20% 정도 많은 전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인류는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치르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고대의 전쟁과 현대의 전쟁은 다른가? 같은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같은 부분이란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점이고, 다른 점은 무력의 내용이 점점 더 크고 광범위하게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2. 전쟁 발생의 원인

동아시아사에서 일어난 전쟁은 통계로 보면 춘추시대 이전보다 춘추시대 이후에 전쟁이 일어난 빈도가 높다. 춘추시대 이전에 50회인 것에 비하여 춘추전국시대에 오면 550년간 무려 625회나 된다. 앞의 50회라는 것에는 시간이 빠져 있고, 또 자료의 부족으로 통계를 잡기도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춘추전국시대에 급격하게 전쟁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대를 구분하여 전국(戰國)시대라고 명명한 것을 본다면 이 시기에는 그 이전 시기보다 전쟁이 일어난 건수도 많았고, 그 상황도 매우 광범위하였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면 왜 춘추전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전쟁의 빈도가 늘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는 데는 여러 시각(視角)을 가질 수 있지만 필자는 문명사(文明史)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류는 끊임없이 도구의 발명을 통하여 그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였다. 특히 신석기 시대 이후로 다양한 도구의 개발을 통하여 한

곳에서도 먹이를 공급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자 인간은 정주(定住) 생활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식물의 작물화(作物化)가 가능하고 동물의 가축화(家畜化)를 통하여 농경문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문명(文明)의 발전이라고 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여간 이렇게 농경문화가 생긴 후로 인간은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인간이 가진 도구(道具)는 아직도 석기(石器), 목기(木器), 소수의 청동기(靑銅器)였기 때문에 그 도구의 효율성으로 보아 개척할 토지는 거의 무한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더 비옥한 곳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둔 종족 간, 집단 간의 전쟁이 있을 수 있는 있지만, 이 시기에 부(富)의 기준은 도구의 소유이다. 이 청동기시대에는 청동기를 제작하고 소유하는 세력이 강자가 되었던 시기였다. 도구만 좋고 많다면 더 많은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더 좋은 도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를 두고 경쟁하던 이러한 시대는 대체로 하(夏), 은(殷), 주(周)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끊임없이 화력(火力)을 발달시켰고 그것은 철기(鐵器)를 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철기의 등장은 청동기시대에 비하여 다량의 철기가 제작되어 소수가 청동기를 소유하였던 시대에 비하여 훨씬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그것은 결국 개간(開墾)의 도구가 되어 종전에 비하여 더 많은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여 더 많은 부를 소유하게 하였다.

이 철기의 광범위한 보급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 부유(富裕)의 근본이 되어서 이제는 도구를 많이 가지려는 경쟁에서 토지를 많이 가지려는 것으로 바뀌어서 도구의 소유가 부로 상징되던 청동기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된 것이다.

여기에서 성읍(城邑)이 중심이 되던 세력은 성읍 밖에 있는 토지를 자기의 전유물(專有物)로 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토지를 둔 두 세력 간의 충돌은 전쟁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명사에서 본다면 도구의 획기적인 발전이 결국 영역 확대의 욕구를 가져왔고 그것이 이웃 간의 충돌,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춘추시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는 철기 도구의 등장은 바로 이 시기부터 전쟁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현재 발견된 유물을 기준으로 보면 춘추시대, 즉 BC 621년에 만들어진 진(秦) 목공(穆公)의 묘(墓)에서 철기(鐵器)가 발견되었으니 이 시기에 철기가 어느 정도 보급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국(戰國)시대에 오면 이른바 전국칠웅(戰國七雄)이라 일컬어지는 진(秦), 초(楚), 연(燕), 제(齊), 한(韓), 위(魏), 조(趙) 지역에서 모두 철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춘추시대가 중원(中原)지역 중심이었다면, 이 시기에는 서쪽으로는 태행(太行)산맥을 넘은 산서(山西), 섬서(陝西) 지역까지 확대되고 동쪽으로는 해변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양자강 유역까지 활동 영역이 크게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3. 개혁이 우선인 시대

철기 문명의 등장으로 각 지역을 점거하였던 세력은 각기 자기 영토의 확장을 염원하게 되고 각 지역에서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다.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는 또 다른 문명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외래 문명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원래 전통 세력의 처지에서는 외래 문명의 수용을 반대하는 보수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것은 그동안 스스로 만들어 온 문화나 문명에 익숙하므로 전통과 다른 외래 문명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보수세력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이 철기시대에 다른 나라와 경쟁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일은 조(趙)에서 먼저 벌어졌다. 조의 무령왕(武靈王)은 중원 문화 밖의 흉노로부터 기마술(騎馬術)을 수용한다. 기마술은 사람의 이동을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기마전(騎馬戰)이 보병전(步兵戰)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기마술을 통하여 상대보다 우위를 점유하기 위하여 기마(騎馬)하기에 편하도록 만들어진 호복(胡服)의 수용은 필수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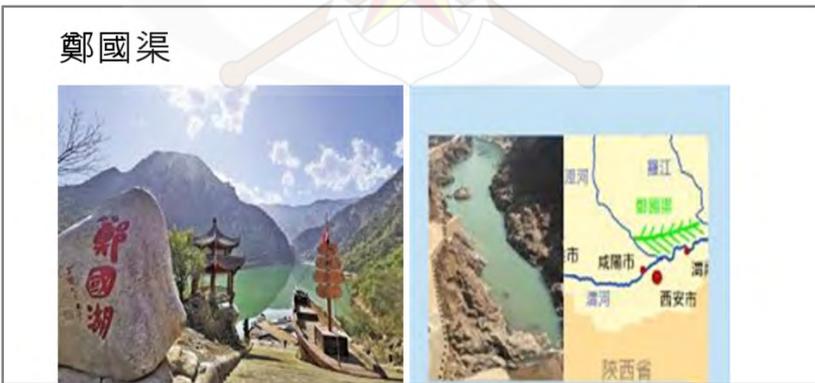
경쟁의 시대

- 趙 武靈王의 胡服



그러니 이를 수용하려 했을 때 전통 세력은 강력하게 반대 뜻을 표한다. 그러나 무령왕은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하여 기마전(騎馬戰)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여 결국 중원지역에 처음으로 기마 문화를 수용하였다. 이러한 그의 과감한 외래문화의 수용은 조(趙)를 보다 강한 군대를 갖도록 하였다.

다음은 과감한 토목(土木) 사업을 통한 농지의 개간이다. 원래 진(秦) 중원지역에 비하여 산악(山嶽)지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이 중원지역에 비하여 떨어졌다. 이때 이웃하는 한(韓)에서 경쟁국 진(秦)의 국력(國力)을 훼손시키려고 토목기술자 정국(鄭國)을 간첩으로 만들어 진에 들여보내 댐 건설의 유리한 점을 유세하게 하여 토목공사를 일으키게 하였다. 그러나 중간에 정국이 간첩인 것으로 발각되었지만, 오히려 진(秦)에서는 그 토목공사 계속하게 하여 엄청나게 넓은 4만여 경(頃)의 비옥(肥沃)한 토지를 개간할 수 있었다.



진에서는 토목공사를 통하여 국력을 소비하는 것 보다 그 공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에 눈을 뜬 것이다. 진(秦)에서는 오히려 토목 기술이라는 새로운 외래의 문명을 과감하게 수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력을 키우는 기초로 삼은 것이다.

다음은 중원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예치(禮治)를 질서를 유지하였는데, 진(秦)에서는 예치(禮治)에서 법치(法治)로 통치 시스템을 바꾸었다. 예치가 전통적인 사회 신분 질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면 법치는 법에 따른 통치를 지향(指向)하는 것이었다. 법을 만들고, 이를 강제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새로운 통치 방법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법이 만들어져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웠지만, 법가(法家) 상앙(商鞅)이 이른바 사목입신(徙木立信), 즉 장대를 남문에 두고 북문까지 옮기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준 사건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조정의 법제는 실행된다는 신의(信義)를 수립하였다.

그 후 진(秦) 각종 개혁정책을 통하여 주민을 통제하여 부국강병(富國強兵)의 길을 갔다. 진은 전통적인 정전제(井田制)를 폐지하고 토지 국유제(國有制)를 실시하고, 군공작(軍功爵)을 설치(設置)하고 농경과 전투를 장려하였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세경(世卿)을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혁을 통하여 경쟁 시대에 국력을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위하여 인재의 영입(迎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한비자(韓非子), 상앙(商鞅), 범수(范雎), 이사(李斯) 같은 인물은 모두 다른 나라 출신이지만 이들을 적극적인 대우를 통하여 국력을 신장(伸張)하도록 하였다.

말하자면 이 시대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내외국인을 구별 없이 유능한 사람이면 이를 수용하는 조치를 하였다. 따라서 종전에 우위를 차지하였던 나라라도 이러한 개혁적인 노력 하지 못할 때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전통을 버리고 개혁하는 것이 우선으로 생각하던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7국 가운데 가장 개혁적이었던 진(秦)의 부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4. 무기의 다양화와 전술(戰術)의 등장

새로운 문명으로 춘추전국시대에 오면서 새로운 무기가 속속 나타났다. 춘추 전국 시기에 검(劍)이 대량으로 사용되어서 군사만이 아니고, 귀족이나 관리(官吏)까지도 검을 찾는데, 이는 호신(護身) 용도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예의상 반드시 패용(佩用)해야 하는 물건이 되었다. 즉 시대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이 시대에 무기의 종류가 다양화하여 칼 외에 궁(弓, 활), 노(弩, 쇠뇌), 창(槍, 창), 도(刀, 칼), 모(矛, 자루 긴창), 순(盾, 방패), 부(斧, 도끼), 월(鉞, 도끼), 극(戟, 끝이 두 갈래인 창), 간(鏑, 굴대 쇠), 과(槌, 채찍), 수(受, 몽둥이), 차(叉, 가지가 있는 무기), 파두(耙頭, 쇠스랑), 줄 같은 것들이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이 대량으로 유통되었다. 이러한 무기들은 《고공기(考工記)》에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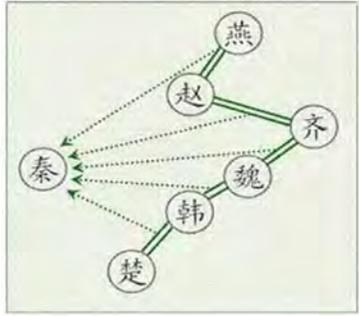
그렇지만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 필요한 병법서(兵法書)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손자병법(孫子兵法)》, 《육도(六韜)》, 《삼십육계(三十六計)》 같은 것들이 등장하였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많이 읽고 있다.

더 나아가서 천하를 두고 자국(自國)의 이익을 위하여 전략(戰略)이 발전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서부지역에 있는 진(秦)과 동부지역에 있던 6국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른바 합종책(合從策)과 연형책(連衡策) 등장한다. 즉 외교 전략이었다.

합종책은 소진(蘇秦)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 서부의 강력한 진(秦)의 위협을 막기 위하여서는 동부지역의 6국이 세로로 연합하여서 진의 동부 진출을 막자는 논리였다. 이 이론에 의하여 동부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연합세력은 실제로 네 차례 진과 대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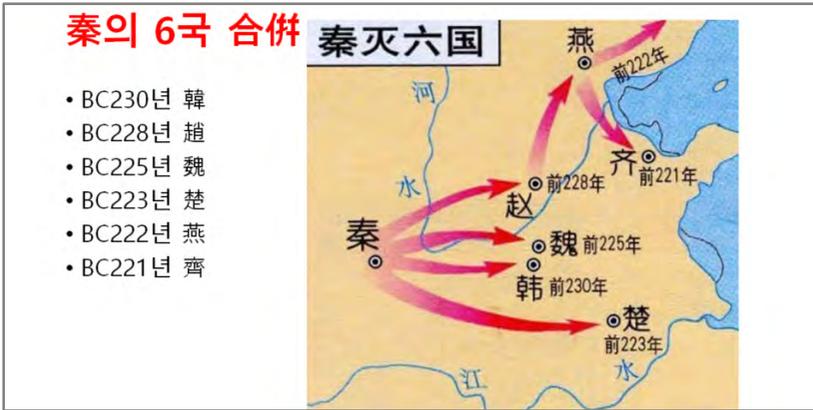
6국 합從; 蘇秦의 합종책

- 1強에 대한 6弱의 연합
- 蘇秦爲從約長 并相六國
北報趙 車騎輜重擬於王者.
- 聯合의 어려움



우선 기원전 318년에 공손연(公孫衍)이 주장하여 초(楚) 회왕(懷王)이 주맹(主盟)이 되어 초(楚), 위(魏), 한(韓), 조(趙), 연(燕)의 5국이 진(秦)을 공격한 일이 있다. 또 기원전 296년에 맹상군(孟嘗君)이 주장하고 제민왕(齊湣王)이 주맹이 되어 제(齊), 한(韓), 위(魏)가 연합하여 진을 공격한 일이 있고, 기원전 247년에는 신릉군(信陵君)이 창도하여 위(魏), 조(趙), 초(楚), 한(韓), 연(燕)의 5국이 연합하여 진을 공격하였으며, 또 기원전 241년에는 조국(趙國) 장군 방난(龐煖)이 주장하여 조(趙), 초(楚), 연(燕), 위(魏)의 4국이 연합하여 진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합종에 의한 동부지역의 연합군은 서부의 진과 싸워 두 번은 승리하고 두 번은 패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합종한 연합군은 군사력으로 보아서는 진을 이길 수 있지만, 연합군이란 위험한 지역에서는 서로 미루며 앞에 나서려 하지 않아 단결하기 어려운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실패한 것이다. 이에 진(秦)에서는 합종의 실패라는 현실을 말거리로 하여 장의(張儀)를 내세워 합종의 논리와 반대되는 연형(連衡)의 논리를 주장하였다. 즉 6국은 각기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한 진과 외교관계를 맺어 두는 것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물론 이 논리는 속임수이었지만 또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들었던 6국은 결국 각기 합종을 깨고 6국은 각기 국별로 진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물론 결과적으로 진은 6국을 차례로 합병하는데, BC230년에는 한(韓)을, BC228년에는 조(趙)를, BC225년에는 위(魏)를, BC223년에는 초(楚)를, BC222년에는 연(燕)을, BC221년에는 제(齊)를 멸망시켜서 진(秦)이 천하통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시기에 개인 무기의 발달과 함께 전술과 전략에서 새로운 논리가 등장하였다.

5. 사회의 변동과 사상의 변화

이러한 전쟁 기간을 통하여 사회도 급속도로 변하였다. 주(周)의 봉건제(封建制)는 철저하게 신분을 구분해 놓고 이 신분의 상하 질서를 유지하게 되어 있었다. 천자(天子)에 의하여 천하는 제후(諸侯)에게 분봉(分封) 되었고, 그 밑으로는 경(卿), 대부(大夫), 사(士), 민(民), 노예(奴隸)라는 철저한 신분 규정이 있었다.

이러한 신분 규정에 따라 사회적 대우, 경제적 부(富)가 질서정연하게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이 질서를 받쳐 주는 것은 예(禮)였다. 사

회적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이 만났을 때 사람 간에는 상하관계가 바로 적용되었고 그것이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였다.

그러나 철기 문명의 등장은 바로 아래 신분에 있는 사람도 새로운 문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상위의 신분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부와 그에 따른 무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반대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새로운 문명을 이용하지 못하면 그 경제적인 부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여 몰락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아니라, 그 시대는 무엇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사(戰士)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가 필요하였고, 따라서 전사 가운데 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은 국가로부터 보상(補償)으로 작위(爵位)를 받아서 신분이 상승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전공자(戰功者)를 우대하는 것은 신분의 유동(流動)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대부(大夫)의 신분이었던 사람이 경제적 부를 통하여 상층 신분이 누릴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 단적인 예는 공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탄하였던 노(魯)나라의 계씨(季氏)가 팔일무(八佾舞)를 그 뜰에서 추게 한 예이다. 과거 주(周)의 예법에 따르면 8일무는 64명의 무희(舞姬)가 춤을 추는 것으로 이는 천자의 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부 신분인 계씨(季氏)는 4일무(佾舞)를 추게 하는데, 그쳐야 하지만 그는 경제적 부로 세력을 갖게 되자 8일무를 추게 하였다. 이는 기존 질서가 무너져 가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장 커다란 변화는 이른바 삼진(三晉)의 등장이다. 자치통감 제일 첫머리에 올린 첫 번째 사건은 ‘대부인 위사(魏斯), 조적(趙籍), 한건(韓虔)을 제후로 삼았다.’라는 것이었다. 이들 세 명은 모두

진(晉)의 대부였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연합하여 다른 대부인 지백(智伯)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대부 신분인 이들이 제후국 진(晉)을 셋으로 나누어 가지어 세력이 강하게 되니 주 위열왕(威烈王)은 이들을 제후로 책봉하였다. 주(周)의 예 질서에 의하면 이 세 대부는 하극상(下剋上)이었으므로 중형(重刑)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질서를 잡아야 할 주왕(周王)은 오히려 이 세 대부의 힘에 굴복하고 제후로 승격시켰다. 이미 주(周)가 만들어 놓은 신분 질서는 무너져 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었다.

이러한 문명의 발달이 가져온 사회의 변동에 대하여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할까? 그것은 단적으로 춘추시대를 살았던 공자(孔子, BC551~BC479)와 전국시대에 살았던 맹자(孟子, BC372~BC289)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같은 유가(儒家)여서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춘추시대를 살았던 공자와 전국시대를 살았던 맹자는 각기 그 살았던 시대의 차이가 이 두 사람에게 생각 차이를 가져온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공자는 대부(大夫)인 양화(陽貨)가 돼지를 선물하자 억지로라도 예의를 차리기 위해 양화가 출타한 틈을 타서 가서 인사하고 온 사건이 있다. 공자가 보기에 대부인 양화는 존경받을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예물을 보냈으니 예의를 차려야 했다. 이것은 그가 무너져 가는 예(禮)를 보면서 주대의 예(禮)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했음을 보인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예는 무너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예를 회복시키고자 하여 극기복례(克己復禮)를 생각한 셈이다.

새로운 시대의 등장, 思想

- 춘추시대의 孔子(BC551 - BC479)
- 孔子謂季氏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 陽貨欲見孔子 孔子不見 歸孔子豚.
- 孔子時其亡也而往拜之.
- 克己復禮



그러나 맹자는 달랐다. 제선왕(齊宣王)이 맹자에게 탕(湯)이 걸(桀)을 추방하고 무왕(武王)이 주(紂)를 친 것은 하극상(下剋上)이 아니냐는 뜻을 가지고 물었다. 걸이 추방되기 전에는 탕은 걸의 신하였으므로 탕이 걸을 친 것을 결과적으로 신하가 임금을 친 것이 아니냐는 뜻이었다. 그것은 무왕이 주(紂)를 친 경우도 마찬가지였었다.

이 질문을 받은 맹자는 바로 걸주(桀紂)는 인의(仁義)를 어겼으므로 이미 임금이 아니고 일부(一夫)였으니 탕이나 무왕은 일부(一夫)를 친 것이지 왕을 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다시 말하면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이미 임금이 아니라는 엄청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를 보통 맹자의 혁명론(革命論)이라고 하는데, 이는 물려받은 신분 질서는 그 행위에 따라 깨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즉 사회의 변화를 사상적으로 수용(受用)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 신분 질서의 변동은 진말(秦末)에 진에 반기(叛旗)를 든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이 ‘장상(將相)의 씨가 따로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군사를 일으킨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사상적 변화는 결국 진(秦)을 대신하여 다시 한왕조(漢王朝)를 세운 유

방(劉邦)은 평민(平民) 출신으로 황제에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서 주대(周代)에 형성된 신분질서는 무너졌다.

새로운 사상, 孟子

- 전국시대의 孟子(BC372~BC289)
- 공자보다 179년 뒤의 사람/學統: 孔子-曾子-子思-孟
- 革命論
- 齊宣王問曰：湯放桀，武王伐紂，有諸？
孟子對曰：于傳有之。曰：臣弑其君可乎？
曰：賊仁者謂之賊，賊義者謂之殘。
殘賊之人謂之一夫。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



6. 전쟁이 가져온 정치 제도의 변화

주왕조(周王朝)가 천하를 통솔하는 방법은 봉건제였다. 주왕(周王)은 제후(諸侯)를 책봉(冊封)하면서 봉토(封土)를 줌으로써 왕과 제후의 수직(垂直)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수직적 질서는 제후와 대부의 관계와 대부와 사(士)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천자가 제후를 책봉하고 봉토를 주고 나서, 그 봉토 안에서는 군사와 경제활동에서는 독자성을 유지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봉작(封爵)된 제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강력해지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급기야 제후도 대부에게 열토(裂土) 되고 주왕(周王)도 겨우 낙양(洛陽)과 근처의 조그만 영토에 머물러 있는 지경이 되었다.

즉, 봉건제도는 제후에게 상속권과 자율권(自律權)을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왕을 능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강자가 된 진(秦)은 봉건제를 버리고 군현제(郡縣制)를 창안하였다. 군현제란 지방을 군현으로 나누고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을 신분이 상속되는 제후가 아니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관리로 바꾸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봉건제가 왕이 천하를 간접 통치하는 제도라면 군현제는 황제가 천하를 직접 통치하는 제도였다.

물론 이 제도는 군현을 관리하는 행정 기술의 미비와 봉건제를 선호하는 지방 세력들의 반발로 얼마 안 되어 무너지지만, 진의 뒤에 세워진 한(漢)은 주대의 봉건제와 진대의 군현제를 절충하여 중앙 권력이 미치는 지역에는 군현제를 채용하고, 그러하지 못한 지역에는 봉건제를 적용하여 군국제(郡國制)를 창안하여 당시 행정력의 정도를 감안한 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중앙권력이 강화되면 점차적으로 중앙집권화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으니 결국 전쟁이 사회 제도를 바꾸어 가고 있었다.

7. 고대 전쟁과 현대 전쟁

동아시아의 고대 전쟁을 살펴보면 인간의 욕구는 문명을 낳고 그 문명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낳게 되었다.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은 다양하고 많은 무기를 만들어 내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술, 전략도 등장한다.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 사회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면 사상도 바뀌었다. 그 위에 영토를 넓힌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것은 필요악으로 치부되어왔다.

이것은 문명의 발달에 그 문명을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공

통의 합의가 빠진대서 오는 비극이었다. 문명의 발달은 도구의 발달을 가져오지만, 그 도구는 누가 어떤 생각으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좋게 사용되기도 하고 비극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체로 전쟁은 발달한 문명을 비극적으로 사용한 결과이다.

사실 인류는 계속적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그 획기적인 문명의 발전은 얼마 후에 인간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그러한 도구를 가진 사람은 그 도구를 가지고 자기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려 하였다. 그러한 패턴은 고대나 현재나 다를 것이 없다.

동아시아에 철기 문명이 가져온 것이 춘추전국시대라면, 인력이나 축력을 뛰어넘는 증기기관의 발전과 산업혁명의 발전 도상에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다. 현재까지 치러진 두 차례의 세계대전도 문명의 발달과 영토의 확장이라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하는 새로운 문명으로 사이버 공간의 등장, AI의 등장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활동 영역을 우주로까지 확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경쟁과 쟁탈전, 우주공간에 대한 경쟁과 쟁탈전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인간이 무엇이며, 그 문명은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전쟁이라는 대단히 가공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나당전쟁 이야기



이상훈
(육군사관학교 교수)



우리나라 고대 전쟁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자다. 현재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관생도에게 한국사와 군사사를 강의하고 있다.

KBS, MBC, EBS, 국방TV 등 역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한편 『아시아경제』 신문에 「이상훈의 한국유사」 전쟁사 칼럼을 6년간 연재했다. 개인 저서로 『나당전쟁 연구』, 『전략 전술의 한국사』, 『신라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전쟁 이후의 한국사』, 『신라의 통일전쟁』, 『나당전쟁-건곤일척의 승부-』 등이, 번역서로 『군인수지』 등이 있다.

우리가 모르는 나당전쟁 이야기

이 상 훈
(육군사관학교 교수)

1. 나당전쟁의 접근

나당전쟁(670~676)은 나당연합군에 의해 660년 백제와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후,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신라와 당이 7여 년에 걸쳐 치열한 격전을 벌인 사건이다. 이러한 나당전쟁에 대해서는 일제시기 일본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나, 신라의 타율성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주제에 불과했다.

광복 이후 점차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과정 속에서, 당과 맞서 싸운 신라의 자주성을 중심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1980~90년대까지 나당전쟁에 관한 인식은 삼국을 통일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외세인 당을 물리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민족의 기틀을 형성했다는 기조가 유지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나당전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소개되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나당전쟁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나당전쟁은 한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의 이해관계와 각 학

자의 성향에 따라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크게 보자면 국외학계의 견해와 국내학계의 견해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주로 국외학계는 한국측 사서의 신빙성 문제를 언급하며, 나당전쟁에서 신라의 역할은 미미했고, 그보다는 토번의 등장과 성장에 따라 전황이 변화되었다는 외부 지향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국내학계는 당시 국제정세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라의 역량과 승리를 강조하는 내부 지향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나당전쟁에 대한 시각을 보다 객관적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나당전쟁 자체에 대한 검토가 선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쟁 자체에 대한 검토없이 외부적 혹은 내부적 요인만 추구하다보면, 나당전쟁에 대한 실상을 외면하고 정해진 결론에 끼워맞추기식 해석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나당전쟁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살펴보자.

2. 나당전쟁의 원인과 개전

나당전쟁의 원인은 백제·고구려 멸망 이후 나당 간의 영토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견해 외에 보다 구체적인 원인으로서는 나당전쟁을 주도한 신라 수뇌부의 입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당연합이 결성되어 백제와 고구려를 원정하는 과정상에서 당에 의한 신라 군령권 침해가 위험수위에 다다랐으며, 그에 따른 신라 국왕과 신라 군부의 반발이 거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평양을 견제할 수 있고 한강하류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전략요충지인 비열홀을 둘러싼 나당 간의 갈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당전쟁의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나당 간의 영토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신라 군부의 불만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나당전쟁의 개전은 토번의 성장이라는 외부적 요인보다는 신라 내부의 문제로 촉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당전쟁의 배경과 발발

-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
 - 웅진도독부(사비) 설치(660)
 - 계림도독부 설치(663)
(신라 문무왕 대도독으로 임명)
 - 안동도호부(평양) 설치(668)

- **신라의 선제공격**
 - 백제 지역 공략 시작(669)
 - 신라·고구려부흥군 요동 공격(670)

신라는 668년 말 왜에 사신을 보내 후방의 염려를 줄인 뒤, 669년에는 본격적으로 전쟁준비를 해나갔다. 정치·외교분야에서는 외교사절을 통해 기만작전과 정보수집을 진행했고, 사회·경제분야에서는 대사면을 통해 사회 안정과 민심수습을 꾀했다. 군사·기술분야에서는 무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목장을 재분배해서 기병을 강화했으며, 종교·심리분야에서는 불교계 인사를 기용해서 사회 안정 및 민심 수습을 하는 한편, 심리전을 구사해서 전쟁준비에 이용하기도 했다. 이렇듯 나당전쟁의 개전에는 신라 군부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고, 신라가 669년을 중심으로 철저히 전쟁준비를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는 669년 철저한 전쟁준비를 거쳐, 670년 3월 설오유의 부대

를 요동으로 전격 파견하였다. 설오유 부대는 고구려 포로를 근간으로 해서 편성된 소모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부대는 장거리행군을 하는 과정에 도하작전을 수행했으며, 공격과 방어에 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기가 상당히 높았음을 짐작케 한다. 설오유 부대의 요동작전은 신라의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었으며, 정병 1만이 동원되어 말갈병 및 당군과 접전을 벌인 점에서 본격적인 나당 간의 충돌로 보아야 한다.

부대이동 시간과 고연무 부대와 연합해서 작전을 수행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설오유 부대의 편성과 협조관계는 늦어도 669년 하반기에는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나당전쟁의 개전시점은 669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당전쟁의 개전은 국제적 상황이 계기가 되었다기보다는 신라 내부의 결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 나당전쟁의 전개와 소강

요동을 선제공격한 신라는 670년 7월부터 671년 7월까지 옛 백제영토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감행하고 옛 백제영토 대부분을 점령했다. 이에 당은 671년 설인귀의 웅진도독부 구원군을 파견했다. 이 웅진도독부 구원군은 671년 6월 석성 전투에서 신라군에게 패배당했다. 반면 신라의 옛 백제영토 점령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결국 7월에는 신라가 옛 백제영토에 소부리주를 설치하고 도독을 임명하게 되었다. 이에 당은 산동반도 일대에 있던 지원부대와 군수물자를 운송해서 웅진도독부 구원군을 지원하고자 했다. 하지만 671년 10월 신라 수군의 공격을 받아 웅진도독부에 대한 지원은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이 시기를 전후하여 신라는 문두루 비법을 시행했다. 이는 비록 설화적 내용이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확대·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두루 비법의 시행은 신라 수뇌부가 지속적으로 당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상태에서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풍랑이나 폭풍이 발생하지 않아 당 수군이 침몰하지 않았더라도, 신라는 수군을 동원해 지형과 해·조류를 이용해 기습 작전을 펴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정박해있던 당 수군이 실제로 침몰해버렸고, 신라군과 신라민은 명랑법사의 문두루 비법에 의해 외침을 막아내었다고 믿게 되었던 것이다. 당군이 673년 이전까지 별다른 수군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점에서, 신라 수군의 활동이 나당전쟁 초기 신라의 제해권 장악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670년 편성된 고간·이근행의 행군은 안시성에서 고구려부흥세력을 진압하고, 671년 평양으로 남하해 왔다. 672년부터 황해도에서 나당 간의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는데, 특히 672년 8월 석문 전투에서 신라는 장수 7명이 사망하는 참패를 당하게 된다. 이에 신라는 당에 사죄사를 파견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대규모 축성작업을 단행하는 등 전략을 공세에서 방어로 전환하게 되었다. 황해도 공방전을 거치면서 신라의 방어선은 대동강선에서 남하해 673년 무렵에는 임진강선까지 밀리게 되었다. 하지만 신라 수군의 활동과 신라군의 결전 회피로 인해 당군의 보급문제가 야기되었고, 장기간 신라 전선에 투입되었던 당군의 병력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전선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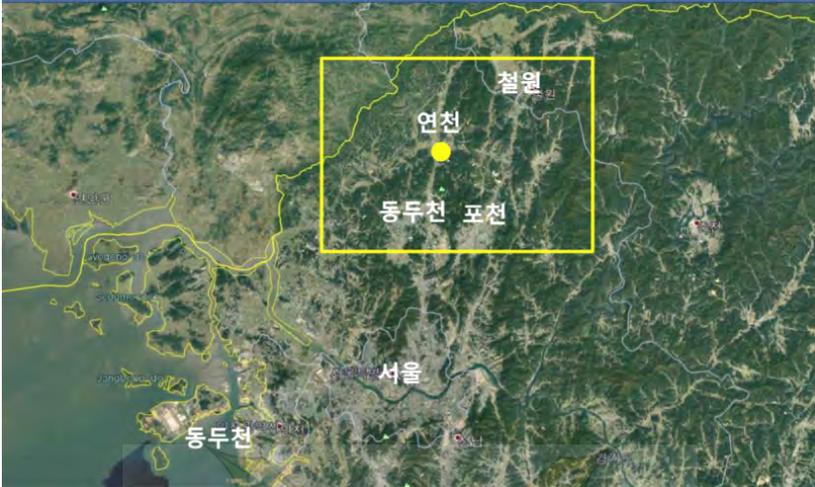
이에 당은 고간·이근행의 4만명만으로는 신라 본토 공격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674년 유인궤의 인솔 하에 대규모 신라 원정군을 편성했다. 유인궤는 이듬해 675년 신라 전선에 도착해 2월 칠중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당으로 돌아갔다. 유인궤는 이전 투입되었던 병력과 새로 투입된 병력을 교체한 후 일부 병력을 인솔해서 귀국했다. 유인궤를 대신해서 이근행이 병력을 충원받은 후 한반도 경략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때 이근행 주도 하에 매소성에 주둔하던 당군은 최소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나당전쟁에는 고간·이근행의 행군병력 4만명 이외에, 설인귀의 계림도행군 2만명을 비롯해서 유인궤의 계림도대행군 최소 4만명 이상이 투입되었다. 이들 병력과 안동도호부 산하의 병력 그리고 지원부대를 모두 더하면, 나당전쟁기 동원된 당군은 최소 10만명에서 많게는 20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나당전쟁의 절정과 결과

나당전쟁의 대표적인 육전은 675년 매소성 전투이며, 수전은 676년 기벌포 전투이다. 675년 9월 매소성 전투가 발생하기 직전 설인귀의 수군은 한강 하구의 천성을 공격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설인귀 함대는 상륙전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보급함대라기보다는 전투함대로 여겨진다. 설인귀 함대가 천성을 공격한 의도는 한강 하류를 일대를 장악해서 임진강을 경계로 형성된 전선을 한강선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천성 전투 이후 곧이어 매소성 전투가 발생하는데, 신라는 이 전투에서 전마 3만여 필과 그에 상응하는 병장기를 획득했다.

매소성의 위치: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산성



이 매소성 전투를 단일 전투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매소성 전투 전후의 천성·아달성·적목성·석현성 전투 등은 모두 신라의 임진강 방어선과 한강 방어선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므로, 서로 연계해서 파악해야 한다. 당은 천성 전투가 시작되자 매소성에서 집결지 행동을 완료하고, 임진강과 한강 사이의 내륙 거점인 칠중성·석현성을 공격했으며, 분견대를 파견해서 아달성·적목성을 함락시켜 강원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자 했다. 즉 매소성 전투를 전후한 일련의 군사활동들은 하나의 큰 전투를 구성하는 전역(戰役)이었던 것이다. 이 매소성 전역에서 신라가 성공적으로 방어를 수행함에 따라, 당군은 임진강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결국 한강 이북지역을 장악하지 못했다.

당은 676년 윤3월 토변의 공격으로 당 내지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자, 고착상태에 빠진 신라 전선을 포기하고 토변 전선에 주력

하게 되었다. 물론 676년 윤3월 이전부터 토번 전선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676년 윤3월 이전 시기에 토번의 침입이나 당의 대처로서 행군편성 및 병모실시 등의 어떠한 징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나당전쟁의 분수령이 되는 매소성 전역은 당의 전략이 전환되기 이전 당이 토번 전선과 신라 전선을 동시에 유지하고자 했던 시기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이 한강 이북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공세를 지속하던 시기에 발생한 전투였다. 신라가 천성과 칠중성에서 당군을 막아내며 당군의 한강 이북 점령계획을 좌절시켰고, 작전기지이자 보급기지였던 매소성을 탈취함으로써 당의 차후 공격계획을 무산시켰던 것이다.

매소성 전역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당은 676년 11월 옛 백제영토의 기벌포를 공격해 왔다. 기벌포 전투의 발생원인은 당군의 철수작전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당전쟁은 675년 9월 매소성 전역을 고비로 당군의 패색이 짙어졌고, 전선은 다시 고착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676년 윤3월 토번이 당 내지를 침입하자 당의 군사전략이 토번을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당군의 철수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즉 676년 11월 이전에 이미 당의 군사전략이 전환되기 때문에, 676년 11월에 발생한 기벌포 전투를 당군의 대규모 공세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기벌포 전투는 당시 당의 철수 주도군과 옛 백제영토 잔류군, 백제의 유민과 반신라적 인사 등이 기벌포로 집결했고 이를 신라 수군이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676년 11월 무렵 당의 신라 원정군의 전면철수가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한반도에 있던 당군 전체가 철수를 시작했다. 그 주요 철수장소 중의 하나가 바로 금강 하구의 기벌포였던 것이다.

675년 9월 매소성 전투(전쟁 분수령)

“(675년) 9월 29일 이근행이 2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매소성에 주둔하였으므로, 우리 군사가 이를 공격해 쫓아버리고 전마(戰馬) 30,380필을 얻었으며 그에 상응하는 병기(兵器)를 노획하였다.”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5년조

“또 우리 군사는 당의 군사와 크고 작은 18번의 싸움에서 모두 이겨 6,047명을 목베고 전마 200필을 얻었다.”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5년조

676년 11월 기벌포 전투(삼국통일 기점)

정리하면 나당전쟁의 결정적 전투는 매소성 전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전역에서 당은 패배 내지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의 대규모 원정군이 수년간 투입되어 영토나 인력·재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0만명 이상 투입된 당의 대규모 원정은 하북도·하남도·강남도의 병력을 동원했으며, 나당전쟁의 종결과 함께 이들은 귀국길에 올랐다. 물론 이들의 귀국은 당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은 676년 11월과 12월에 나당전쟁의 후유증을 무마하기 위해 개원과 대사를 실시하고, 반군부세력인 이경현을 중서령으로 삼았다. 나아가 대규모 순무사를 나당전쟁과 관련된 지역으로 파견해서 민심을 수습에 주력했던 것이다. 중국 동부 지역이 나당전쟁에서 병력과 물자를 충원하던 지역임을 감안해 보면, 당은 나당전쟁의 결과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5. 나당전쟁의 이해

나당전쟁은 당시 최강대국 당과 동북의 변방국인 신라 사이에 벌어진 대규모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당이나 신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거나 패배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당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당은 공세를 지속했지만, 신라가 당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당의 보급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은 분명하다. 당은 원정군의 보급문제, 국내의 여론악화, 토번의 서북변경 위협이라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신라 원정에 실패한 이 사건은 축소되고 점차 잊혀져 갔으며, 중국 사서에는 자세한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다.

나당전쟁에 투입된 당군은 말갈병이 주력이었으며, 기병 위주의 부대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나당전쟁기의 당군은 말갈병 중심의 변병이 아니라, 당 본토의 하남도·하북도·강남도에서 동원된 주력부대들이었다. 특히 전투양상을 분석한 결과 말갈병은 오히려 보병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갈족 출신 이근행은 부족을 이끄는 변장이라기보다는 당의 행정체계에 흡수된 객장으로 보아야 한다. 이근행이 토번 전선으로 이동되었다고 해서 한반도 주둔 당군 대부분이 서역으로 이동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즉 이근행의 서역 이동에 따라 나당전쟁이 종전되었다고 보는 ‘한반도 방기론’은 지양되어야 한다.

나당전쟁은 정확한 정세판단을 바탕으로 한 신라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당은 대규모 원정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를 ‘정벌’하지 못했다. 따라서 나당전쟁은 최강대국 당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약소국’ 신라의 승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신라는

당에 맞서 대의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해 강경책과 유화책을 적절히 구사했다. 그리고 신라군은 당시 고유의 군사 편제단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최대 7~8만명 정도 동원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당전쟁의 승리는 신라 자체의 전력이 안정되어 있었고, 신라 수뇌부의 전략전술이 주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당전쟁은 신라에 있어 대(對) 백제·고구려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전쟁이었다. 국가의 존망을 다투는 그것도 외부의 지원없이 최강대국과의 전면전이었던 것이다. 신라는 당과의 전면전에 앞서, 옛 백제영토 일부와 서북상 군사 요충지인 비열홀을 장악하고, 요동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해서 전쟁 초기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즉 나당전쟁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전략상의 요충지를 선점해서 당의 침략을 미연에 대비하고자 한 일종의 ‘예방전쟁(豫防戰爭)’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신라는 7여 년에 걸친 당과의 장기전을 치르면서 한반도를 굳건히 지켜냈다. 이러한 나당전쟁의 개전과 종전은 국제정세의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신라의 역량과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백제와 고구려의 패망을 목도한 신라의 목표는 ‘대의명분’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다. 결국 신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최강대국에 맞서 그것을 성취하였다.

고려는 최강대국 거란을 어떻게 물리쳤나?



길승수
(역사소설가)



‘고려와 거란의 전쟁’을 다룬 역사소설인 『고려거란전쟁』 시리즈를 꾸준히 집필 중이고 동명의 역사책도 출간했다.

역사소설 『고려거란전쟁: 고려의 영웅들』은 ‘1010년 거란의 2차 침공’을 다룬 소설이고, 그 후속편인 『고려거란전쟁: 구주대첩』은 근 시일 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방송활동으로는 역시 고려거란전쟁을 다룬 <TBC 평화전쟁1019>에 대본 작가와 자문으로 참여했으며, 2023년 11월에 방영된 KBS 대하사극 <KBS 고려거란전쟁>에 원작자와 자문이었다.

강연 03

고려는 최강대국 거란을 어떻게 물리쳤나?

길 승 수
역사소설가

저는 <고려거란전쟁>이라는 제목의 역사소설과 역사책을 쓴 길승수 작가입니다. 오늘 날씨가 꽤 더운데요. 제 강연을 들으려고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외세에 참 많이 침입받았죠. 오늘 강연 소재인 거란도 그 중 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거란은 전국력을 동원해서 고려를 멸망시키려고 했죠. 실제로 고려는 멸망 직전까지 갔고요. 그러나 당시 고려에는 훌륭한 왕과 신하들이 좋은 정치를 펼쳐서 국력을 하나로 모아,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기념관에도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귀주대첩 기록화가 있습니다.



#1-귀주대첩 기록화



#2-평화전쟁 1019

제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 고려거란전쟁을 다룬 ‘평화전쟁 1019’라는 역사 다큐에 공동으로 대본을 쓰고 직접 출연도 했습니다. 2019년에 jtbc에서 방영을 했었죠.



#3-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그리고 KBS에서 방영된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의 원작자이자 자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고려거란전쟁’이란 소재를 가지고 벌써 15년째 역사 소설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 마무리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역사소설을 쓰기로 마음먹고 시작했는데요. ‘고려거란전쟁’이라는 소재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조선시대는 많은 소설이나 영화, 사극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말고 다른 시대에 대해서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의 역사책인 고려사가 1960년대에 북한에서 완전히 번역이 되었습니다. 완역본이라고 하죠. 이 북한 고려사 번역본이 제가 소설 쓰기 몇 년 전에 남한에서 책으로 발간되고 cd에 담겨서도 출시되어 나왔습니다. cd가 좋은 것이 검색이 된다는 것이었죠. cd를 구입한 다음에 대강 훑어보고 ‘고려거란전쟁’이라는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1년 정도면 쓰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쓰고 보았더니 이걸 역사소설이 아니더군요. 제 냉정한 스스로의 평가는 역사 소설이 아니라 무협지에 가까웠습니다. 제 소설에 역사가 듬뿍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었죠. 아-, 그래서 역사를 치밀하게 공부하고 써야, 역사 소설이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고려거란전쟁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기록이 부족해도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논문 등이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남한에서는 고려사에 관한 관심이 부족해 관련 논문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공부를 넘어서 연구를 해야 했습니다. 부족한 기록 속에서 의미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했죠.

한 가지 예를 들면, 고려와 거란의 분쟁 기간 중에 고려군 총사령관의 명칭은 처음에는 ‘군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통’으로 변했다가 다시 ‘상원수’가 되는데요. 고려사는 기록이 간소해서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은 데다가, 관련 논문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연구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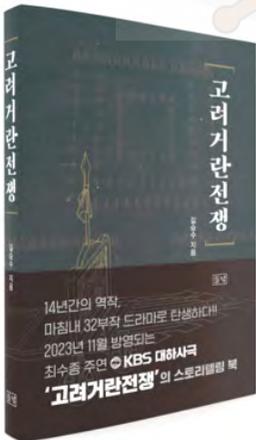
그리고 고려사뿐만이 아니라 거란의 역사서인 요사도 반드시 참고해서 소설을 써야 했더군요. 그런데 소설을 쓸 당시 요사의 번역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요사 원문을 구해서 번역해가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한문 실력이 워낙 없는 데다가, 천 년 전의 외국의 역사책을 번역한다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더군요. 요사를 번역하는 것 만도 10년은 더 걸리겠구나 싶어서 좌절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2012년에 단국대학교에서 요사 번역본을 출판해서 엄청난 짐을 덜 수 있었죠.



#4-요사 사진

그래서 3년 정도 공부하고 연구했더니 드디어 고려거란전쟁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대강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그때 만든 원고를 기반으로 해서, 낸 역사책입니다. 사실 제 정체성은 ‘역사가’가 아니라 ‘역사소설가’라, 역사책을 따로 낼 생각은 없었는데, 출판사에서 내라고 하니, 내야죠, 뭐.



#5-<고려거란전쟁 표지, 들녘>

우리는 모두 초중고 다닐 때, 고려의 인물 서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거란의 소손녕이

993년에 침공해옵니다. 이것이 거란의 1차 침공이죠. 이때 서희가 소손녕과 외교 담판을 벌여, 서희의 논리에 설득당한 소손녕이 강동6주라는 땅을 떼어 주고 돌아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동화같은 이야기죠.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소손녕은 당시 거란 최고의 인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정치와 전투에 모두 능했죠.



#6-서희 영정



#7-993년 당시 지도

이 지도에서 보면 거란의 동경부터 대령강 사이에는 여진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려와 거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죠.



#8-회담 결과 지도

담판의 실제 내용은, 고려는 압록강과 대령강 사이에 6개의 성을 쌓고, 거란은 압록강과 동경 사이에 5개의 성을 쌓기로 약속합니다.

고려와 거란은 양동작전으로 여진족을 몰아내고, 고려는 압록강과 대령강 사이의 땅을 얻고, 거란은 요동의 지배권을 확립합니다.

이것이 서희와 소손녕의 담판의 실제 모습입니다.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실리를 챙겼죠. 그러니까 소손녕이 서희의 세치 혀에 설득당한 일은 사실 없었습니다. 아주 잘 못 알려져 있죠. 잘못된 사실이 넓게 퍼지자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변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서희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처럼 잘못 알려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서희는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서희를 외교관이라고 평가하며, 서희의 동상이 국립외교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희는 외교관이라기보다는 훌륭한 장수이자 군사전략가였습니다.

소손녕의 침공 당시, 거란과 고려는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손녕은 여진족이 사는 곳을 가로질러 고려를 침공합니다. 대단히 과감한 작전이었죠.

고려에서는 이 침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려의 제5대 왕이었던 성종은 급히 군사들을 소집하고, 서희를 중군사로 임명하여 거란군을 막게 합니다.

그리고 성종 역시 이렇게 말하며 직접 전장으로 향합니다.

“지금 적이 침입하여 나라를 어지럽히니, 짐이 직접 군대를 인솔하여 물리칠 것이다!”
- 현화사 비문



#9-당시 고려 지도

당시 고려의 선봉군은 대령강을 넘어 봉산군이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란군에 패하고 말죠.

서희는 군대를 이끌고 봉산군 쪽으로 향합니다. 선봉군이 패한 상황에서도 거란군과 야전에서 승부를 보려 한 것이었습니다. 대령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간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거란군은 초전에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이상하게도 남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이 모습을 보고 화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려 성종은 서경, 즉 지금의 평양에 있었는데요. 서희는 서경에 있던 성종에게 화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합니다. 성종은 즉시 사신을 거란 진영으로 보내서 교섭하게 했는데, 소손녕은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80만 군사가 이르렀다. 속히 와서 항복하라!”

- 고려사 서희 열전

소손녕의 편지를 받고 고려 조정에서는 대책회의가 열리는데요, 신하들은 두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항복하자는 의견’과 ‘땅을 떼어 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즉 항복론과 할지론이었죠.

사실 고려 조정에서도 소손녕의 80만 대군은 거짓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려 조정은 패닉 상태였는데, 이것은 일단 아군의 선봉대가 패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선봉대는 군사들 중에 가려 뽑은 사람들로서 한 명 한 명이 일당백의 정예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 군사들이 패했으니 고려의 임금과 신하들이 느끼는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합리적으로 이들이 야전에서 패했으니 앞으로도 야전에서 거란군을 이길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10-당시 동북아 지도

또한 불과 몇 년 전 송나라가 거란에 연이어 패하여 수십만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고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송나라보다 국력이 더 작은 고려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강물이 얼어붙으면 대령강 등은 더 이상 방어선이 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항복은 불가했으니 남은 선택지는 ‘영토를 떼어 주는 의견’이었습니다.

성종은 이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어선으로 자비령이라는 곳을 선택합니다. 자비령은 서경에서 개경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 이장용(李藏用, 1201~1272)이라는 관료는 자비령에 대해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자비령 넘는 길은 열여덟 번 꺾이는데,
장검 하나 들고 지켜서면 일만 군사를 막을 수 있다네.

자비령은 말 그대로 한 명이 만 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었죠. 성종은 이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여 서경을 비우게 하고 또한 비축된 식량도 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종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그 변수는 한 사람-, 바로, 서희였습니다.

조정에서 땅을 떼어 주기로 결정되었을 때, 서희는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서희는 즉시 서경으로 달려가, 성종에게 이렇게 일갈하는데요.

“전투의 승부는, 적의 빈틈을 보아, 기동하는데 있습니다!”

- 고려사 서희 열전

서희는 거란군과 승부를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땅을 적에게 떼어 준다면 만세의 치욕이 될 것입니다.”

- 고려사 서희 열전

성종의 서희에 대한 신뢰는 남달랐습니다. 서희의 말에, 즉시 식량 버리는 것을 중지시키고 방어선 후퇴 계획 역시 취소시킵니다.

서희는 이어서 거란군과 승부를 볼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데요,

“신으로 하여금 전투를 하게 해주십시오.
승부를 본 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 고려사 서희 열전

서희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감이 오시죠?

서희는 강력한 적과 맞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성종은 서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거란군과 전투를 결정합니다,

요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요사에서는 소손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담력과 지략이 있고 모의를 잘했다.”

소손녕은 용맹하고 과감한 성격의 소유자로 전쟁터에서 여러 번 공을 세웠습니다.

지금 전선은 교착상태였죠, 거란군이 강을 건너 고려군을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지만, 소손녕은 과감한 결정을 내리죠.

우회 기동하여 고려의 안용진을 급습한 것입니다. 고려의 주력군이 있는 곳을 피한 기습작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 안용진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강의 추정만 가능한데, 위 지도에 서처럼 청천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고려군의 대령강 방어선을 피해서 급습할만한 위치에 있죠.

이 안용진 전투에서 고려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안용진에 대한 기습

이 실패하자 소손녕은 감히 다시 진군하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서희가 거란군과 승부를 본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한 이유였죠.

이 안용진 전투를 계기로 드디어 서희와 소손녕이 회담을 하게 됩니다. 전쟁 후 평화협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소손녕이 서희의 말발에 수궁하여 퇴각한 것이 아닙니다. 거란군은 고려군에 막혀 고려 영토로 밀고 들어 올 힘이 없었죠.

그리고 거란군이 적국을 침공할 때 3가지 침공 방식이 있습니다. 전쟁 매뉴얼이죠.

1. 황제가 친정할 때-전국의 가용한 군사들을 모두 동원한다.
2. 황제가 친정하지 않지만, 총사령관인 도통을 임명할 때-15만 정도의 군사를 동원한다.
3. 도통을 임명하지 않을 때-기병 6만 정도를 동원한다. 이때는 적국 깊이 쳐들어가거나 성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나무도 베지 못하게 한다. 다만 국경 밖 3백리 내에는 생활할 수 있는 근거지를 없애 곡식을 심거나 가축을 기르지 못하게 한다.

1번과 2번 방식일 때는 작전 수행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3번은 침공 규모가 작고 작전 수행에도 한계가 있죠.

소손녕의 침공은 3번째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애당초 고려 영토에 깊이 들어올 의도도 없었습니다.



회담의 내용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이러했습니다.

거란은 동경부터 압록강 사이에 5개의 성을 쌓고 요동 지역의 지배권을 갖는 것이었고, 고려는 압록강과 대령강 사이에 6개의 성을 쌓아 이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희의 말 한마디에 소손녕이 땅을 떼 주고 물러간,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는 현실에 없었던 것입니다.

서희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비록 소손녕은 물러갔으나 거란군이 다시 침공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국가방어체계를 시급히 만들어야 했습니다.

서희는 군사를 거느리고 여진족을 쫓아내어, 대령강과 압록강 사이의 땅을 개척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강동6주라고 부르죠.

사실 이 강동6주라는 용어는 원래 거란 측 용어입니다. 고려에서 대령강과 압록강 사이에 6개의 성을 쌓는다고 거란에 통보했기 때문에, 거란에서 압록강 동쪽의 6성이라고 해서 강동6주라고 부른 것이었죠.



#12-서북면, 동북면 지도

하여간 서희는 강동6주를 개척하고, 서북쪽 국경지역에 ‘서북면’이라는 특수군사행정구역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동북쪽에는 ‘동북면’을 설치하죠. 여기서 나오는 세금은 모조리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국방비로 쓰게 합니다. 이 서북면과 동북면이 서희가 고려를 지키기 위해 만든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육위’라고 불리는 중앙군도 새롭게 편제하고, 총사령관의 명칭을 ‘군사’에서 ‘도통’으로 바꿉니다. 이 도통 체계는 당시 거란군의 편제를 받아들여 고려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좌우위(左右衛)-전투부대 / 신호위(神虎衛)-전투부대
흥위위(興威衛)-전투부대 / 금오위(金吾衛)-경찰부대
천우위(千牛衛)-의장부대 / 감문위(監門衛)-수문부대

이 중앙군들은 서북면과 동북면 외의 전국에서 소집하는 군사들인데
요. 이들에게 토지와 경작할 수 있는 노동력을 지급하여, 생계에 구
애받지 않고 군사훈련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외에도 군인 가족들에게도 여러 복지 정책을 실시합니다. 군사들
과 그 가족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었기 때문에, 서희에 의해 고려군
은 강한 군대가 됩니다.

이 중앙군을 ‘고려의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희는 고려의 방패
와 창을 만든 것이죠.

서희의 국가방어체계는, 적들이 침략하면, 서북면이나 동북면이 방패
가 되어 시간을 벌어주고, 그때 소집된 중앙군이 창이 되어 침입한
적을 무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서희의 대단한 점
은, 소손녕과의 회담이 아니라,

첫째, 고려 선봉군이 패해서 고려 조정이 패닉에 빠졌는데, 홀로 냉
정을 유지하며 거란군을 막아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네요. 체계적인 고려의 국가방
어체계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희와 성종은 거란의 재침에 대비해 국가방어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매우 바빠 움직였는데요. 이때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고려 성종과 거란 공주가 혼인관계를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려 성종
의 결혼 상대자는 소손녕의 딸이었습니다. 소손녕은 부마였고 그러니까
공주의 남편이었고, 또한 거란은 야율 씨와 소 씨의 연맹체로 시작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소손녕은 그 소 씨 중에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은 소손녕의 딸이 공주급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하여간, 이 혼인으로 고려와 거란은 각별한 밀월관계가 됩니다. 고려 성종은 송나라와의 관계는 아예 끊고 거란과만 교류할 정도였죠.

당시 거란의 최상층부 귀족들은 개인 영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 추정으로는 소손녕의 딸이 고려로 시집오면서 요동의 핵심지역 정도를 지참금으로 들고 오는 것이 결혼의 조건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고려 성종이 송나라와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거란과만 외교관계를 맺었다고 보입니다.

거란 황실의 혼인제도는 이른 나이에 정혼을 한 뒤에 여자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시집으로 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듬해(997년)에 고려 성종이 사망해서 실제 결혼생활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소손녕의 딸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많아야 4살 정도이고, 생후 몇 개월인 젖먹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이후로 고려와 거란은 적대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정기적으로 사신을 교환하며 안정적인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거란의 재침에 대비했으나 의외로 평화로운 사이가 된 것이죠.



#13-강조의 정변.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중에

1차 침공이 있는 지 16년 후, 그러니까 1009년이죠. 고려에서는 중추사 강조가 당시 왕이던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옹립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강조의 정변’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빌미로 거란이 다시 고려를 침공하는데요. 당시 거란 황제 야율용서가 직접 고려로 왔고 총 40만의 대군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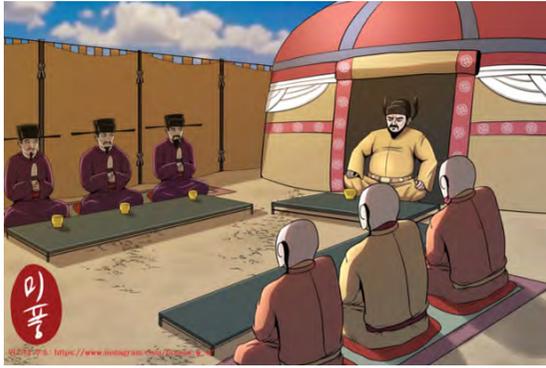
보통 이 침공의 이유를 거란이 송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후방 안정을 위하여 고려를 먼저 공격했다고들 많이 설명하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14-연운16주

당시 시대를 이해하려면 거란의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요. 거란은 태조 야율아보기가 건국하여 발해를 멸망시키고 사방을 정벌하여 군사적 강국이 됩니다. 2대 황제 태종 야율덕광은 만리장성을 넘어 지금

의 북경을 포함하는 연운16주 지역을 점령하여 제국의 위치에 오릅니다. 이 연운16주 지역은 한족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15-거란복색과 한족복색.
<고려거란전쟁, 길승수, 들녘> 중에

거란 태종은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이원적 통치체제’를 도입하는데요. 거란은 거란의 법으로 다스리지만, 연운16주 지역은 한족의 법으로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거란 법에 의한 거란 관료와 한족 법에 의한 한족 관료가 따로 있었죠. 이것이 흉노나 몽골과 다른, 거란 통치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황제를 중심으로 거란 관리와 한족 관리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한족을 통합하기 위하여 거란 황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족 황제의 복식을 입었다는 것이죠.

거란 태종 다음에 3대 황제 세종이 즉위하는데요. 재위 4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 다음은 4대 황제 목종이 즉위하는데요. 목종은 폭군이었습니다. 역시 결국 암살당하죠. 이렇듯 태종 이후로 거란 내부 정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방에서 적들의 공격을 받으며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거란 5대 황제 경종(景宗, 재위: 969~982)이 즉위합니다. 이때

부터 거란의 진정한 중흥기가 시작됩니다. 중흥기의 시작은 경종이 즉위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6-승천황태후.
<고려거란전쟁, 길승수, 들녘> 중

바로 경종의 황후였던 예지황후 소작(蘇綽, 953~1009년)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예지황후 소작은 소태후 혹은 승천황태후(承天皇太后)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경종은 몸이 병약했다고 하며, 따라서 승천황태후가 경종을 대신해 거란을 통치합니다. 자신의 아들 야율

용서가 6대 황제가 된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승천황태후는 970년대부터 1009년까지 40여 년간 사실상 거란을 지배합니다.

승천황태후가 정권을 잡은 다음, 동쪽으로는 발해부흥세력을 완전히 말살하고 적대적 여진족들 역시 정벌합니다. 이때 소손녕의 1차 고려 침공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금의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지나 카라코룸 근처까지 장악합니다.

남쪽으로는 송나라를 압박합니다. 1004년, 승천황태후는 직접 20만 대군을 이끌고 송나라를 침공합니다. 이때 송나라는 거의 멸망 위기에 놓이는데요. 송나라로서는 천만다행으로 거란의 총사령관인 소달름이 정찰을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사망하는 바람에 위기를 넘깁니다.

이후 거란과 송나라는 '전연의 맹약'이라는 조약을 맺었는데, 매년 송나라가 거란에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을 바치기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거란의 역사서인 요사는 승천황태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승천황태후는 정치에 통달해서 옳은 말을 들으면 반드시 따랐다. 또한 상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신하들은 모두 그녀에게 충성을 바쳤다. 그로 인해 거란은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

- 요사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1009년 2월 강조가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옹립하죠. 현종이 왕위에 오른 사실을 거란에 알립니다. 승천황태후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니다. 정상적으로 사신이 오가며 평화로운 상태였죠.

그런데 이 대단했던 승천황태후가 같은 해 12월에 사망합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란 황제 아율용서는 12살에 황제가 된 뒤에, 27년간 황위에 있었는데, 황제의 권력을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어머니 승천황태후가 결정해왔죠. 사실 승천황태후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당시 사냥은 거란인들이 즐기는 스포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율용서도 아주 좋아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했는데 승천황태후가 그 다음날 명령을 내립니다. 사냥 나가지 말라고요. 위험해서 다칠 수 있다고. 장성한 황제



#17-거란 황제 아율용서.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중에

가 어머니의 위세에 눌러 스포츠도 마음대로 즐길 수 없었던 것이죠.

어머니의 사망으로 드디어 오로지 황제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고려에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난 것이죠. 고려에서 일어난 일은 내부적인 문제였고 고려와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고려를 공격할 필요는 없었으나 야율용서는 승천황태후처럼 전공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고려 정벌이 무리하고 무의미한 일이었으므로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거란 관리 소적렬(蕭敵烈)은 이렇게 말하며 반대합니다.

“고려는 작은 나라이나 성과 보루가 완전하고 튼튼합니다. 승리하여도 무공을 쌓는 것이 아니고 만일 패한다면 후회를 남길까 두렵습니다.” - 요사 소적렬 열전

그렇지만 신하들의 반대에도 야율용서는 무공을 세우기 위하여 고려 정벌을 강행합니다. 무공을 세우고 싶은 야율용서의 강한 욕망! 이것이 고려 정벌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마침내 1010년 11월! 거란군 40만 대군이 고려를 침공합니다.

황제가 직접 고려로 왔지만 군대의 지휘는 소배압을 도통으로 임명하여 일임을 합니다. 소배압은 이때 5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거란 최고의 명장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이때 고려의 방패인 서북면을 책임지는 사람은 서북면도순검사(都巡檢使) 양규였습니다. 당시 양규는 최전선 흥화진에 있었는데, 약 4, 5천 정도의 병력으로 거란 40만 대군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8-야율용서와 소배압.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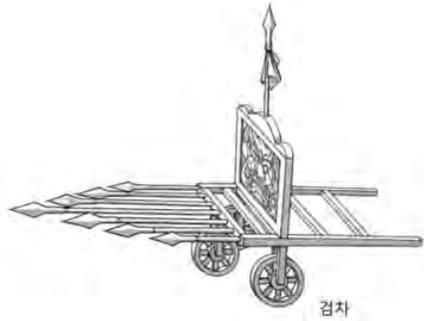
#19-서북면도순검사 양규.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중에



#20-흥화진과 통주, 삼수채 등 지도

그리고 강조가 총사령관인 도통이 되어 군사 30만을 거느리고 통주로 가서 거란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거란군은 흥화진을 포위 공격하지만 결국 함락시키지 못하고, 고려의 주력군이 주둔하고 있는 통주 쪽으로 남하를 합니다. 흥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한 상태였기에 흥화진을 견제하기 위하여 군사 20만을 흥화진 북쪽에 남겨두고 통주로 향합니다.

강조가 이끄는 고려의 주력군은 통주 동남쪽 삼수채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남하하는 거란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수채는 주위에 흐르는 강물들이 모이는 곳으로 꽤 넓은 평야지대였습니다.



#21-검차

이 전투 경과는 잘 알려져 있죠. 삼수채에서 고려와 거란의 주력군 간에 회전이 벌어지는데요. 초반에 검차를 이용해 고려군이 승리를 거두지만 결국 패하고 맙니다. 서희가 만든 ‘고려의 창’이 꺾인 것이죠.



#22-검차 진영.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중에

이 검차가 등장하는 전투 장면이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의 메인 전투씬인데요. 이 장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편근이 뒤통수를 때려서 눈알이 튀어나오고 있음 구경꾼이 눈을 찌르는 순간. 놀란 거란병사



#23-검차 진영. 길승수 작가가 구성한 이미지

공개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 사진과 그림 등을 오려 붙여서 장면을 구성합니다.



#24-검차 진영

그러면 제 역사책 <고려거란전쟁>의 그림 작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이 그림을 바탕으로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의 전투씬이 만들어졌습니다.



#25-곽주, 안주, 숙주, 서경 지도

다시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서 거란군은 통주성을 공격하나 역시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이쯤 되면 회군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한데 거란군은 남하를 결정합니다. 중간기지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전략이지만 기동력이 뒷받침된다면 터할 나위 없이 효과적인 전술이기도 했습니다.

거란군은 이 전술로 발해를 멸망시켰고 송나라를 굴복시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야율용서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곽주성을 함락시킨 것입니다.

거란군은 곽주성에 6천여 명을 잔류시켜 성을 수비하게 한 뒤 다시 남하합니다. 이제 중간 기지를 확보한 거란군에게 거칠 것은 없었죠. 계속 남하하여 안주를 함락시키고 숙주 역시 함락시킵니다. 안타깝게도 고려의 방어선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란군은 고려 제2의

수도 서경, 즉 평양을 향해 내달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서경의 관료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결정하는데요, 서경은 서쪽에 있는 수도라는 의미로, 태조 왕건은 서경을 군사적 수도로 삼고 기능을 강화해왔습니다. 서희 역시 서경을 중심으로 한 방어전략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경이 무너지면 고려의 방어선은 붕괴될 위험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현종은 동북면 군사를 이동시켜 서경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동북면도순검사 탁사정과 중랑장 지채문이 군사 3천명을 이끌고 서경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강조가 패배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였죠.

탁사정과 지채문은 항복을 결정했던 서경의 관료들을 처단하고 항전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특히 지채문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서경성을 나가 야전에서 여러 번 거란군에 승리를 거두는데요.



#26-마탄

그러나 역시 서경 동쪽 마탄이라는 곳에서 거란군에 패하고 맙니다. 지채문의 패배로 서경은 다시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경의 위기는 곧 고려의 위기와 같았죠! 서경 방어를 책임진 여러 장수들이 전사하거나 도망가 버리자, 성 안의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졌습니다. 서경에 고위급 관료는 전무했으며 병력 역시 부족했습니다.



#27-조원과 강민첨.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중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중하급의 7품 관료인 통군녹사 조원(趙元)과 애수진장 강민첨(姜民瞻)이 나섭니다. 만일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중하급에 해당하는 관료들이 전면에 나설 일은 없었을 것이죠.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강민첨은 무술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굳세고 과감한 의기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조원과 강민첨 등이 서경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거란군의 포위 공격이 오래된다면 서경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서경은 평지성인데다가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고려를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로 흥화진을 지키고 있던 서북면도순검사 양규였습니다.

양규는 7백여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흥화진을 나와 남하합니다. 이들은 전속력으로 통주를 향했죠. 양규는 통주성에서 1천 명의 군사를 징발하여 결사대에 합류시켰습니다. 양규는 170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다시 통주성을 나섰습니다.

양규와 1700명의 군사들이 향한 곳은 거란군이 함락시킨 곽주였죠. 거란군은 이곳에 6천 명의 수비 병력을 두고 있었습니다. 양규와 결사대가 빠른 속도로 남하하여 곽주성 근처에 이르렀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밤중에 곽주로 들어가서, 거란 병사들을 습격하여 모조리 목을 베었으며, 성 안에 있던 남녀 7천여 명을 구하여 통주로 옮겼다.

- 고려사 양규 열전

양규는 겨우 1700명 정도의 병력으로, 거란군 6천 명이 지키고 있던 곽주를 함락시킨 것입니다. 성곽을 공격하려면 수비 병력보다 몇 배는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6천 명이 지키는 성을 함락시키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양규는 겨우 1700명으로 이것을 해냈습니다. 이런 일은 세계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양규는 곽주를 탈환해내고 거기에 더해 7천 명의 고려인 포로도 구했습니다.

양규는 고려인 포로들을 모두 통주성으로 옮기고 곽주를 비워둡니다. 곽주를 지키려고만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양규는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주에 전력을 집중시켰습니다.

고려군이 곽주를 탈환했다는 소식은 서경을 포위하고 있던 거란진중에도 전해졌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양규가 거느린 병력이, 겨우 1700명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거란군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거란군 6천 명이 지키고 있는 광주가 함락될 정도라면, 수만 명 규모의 고려군이 움직였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수만 명의 고려군이 뒤쪽에서 움직이고 있고 광주라는 중간기지도 잃었으니, 퇴각하는 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거란군은 서경의 포위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퇴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경을 향해 남하합니다.



#28번-거란군이 서경에서 개경으로 남하한다.

정말 거란군의 대담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때 거란군이 개경까지 다가오자 고려 조정에서는 모든 신하들이 현종에게 항복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이렇게 말하며 항전을 주장하죠.

나주를 목적지로 한 것은 국토의 최남단이라는 것과 나주가 태조 왕건의 개인 영지와 같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주는 고려 2대 왕 해종과 그의 어머니 장화왕후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남쪽의 물산들은 모두 나주를 거쳐 해로를 통해 개경으로 운반됩니다. 이곳을 틀어쥐고 있으면 거란군에 끝까지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200년 후 삼별초 역시 이 근처에 주둔하며 해운로를 통제하며 몽골에 대항했었죠.

거란의 선봉군은 현종을 잡기 위해 한강에 이르렀으나 한강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강물이 녹을 것이었습니다. 거란군은 회군을 시작합니다.

이제 서북면도순검사 양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31번-내륙길과 해안길 지도

거란군은 청천강을 넘은 다음, 침공 때 이용했던 비교적 평탄한 길인 해안길로 이동하지 못하고, 험난한 산지지형인 내륙길로 이동했습니다.

이유는 양규 때문인데요. 양규는 곱주를 비워 둔 대신에, 통주에 전력을 집중해서 거란군이 해안길로 이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하여 삼수채를 비롯한 이곳 주변 지형들은 날이 따뜻해지며 진창으로 변했기 때문에 대군이 이동하기 힘든 길이었습니다.

첫 전투는 구주 근처 산악지대에서 벌어지는데요. 구주별장 김숙흥이 중랑장 보량과 함께 거란군을 습격하여 1만여 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때 김숙흥이 이끈 군사는 구주 소속 군사들로 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열 배의 적을 섬멸한 것이었죠. 엄청난 전공이었습니다.

그 후, 양규는 결사대를 이끌고 종횡무진하며 회군하는 거란군을 요격했습니다. 거란군에 최대한 피해를 주려고 했습니다. 또한 포로를 구하려고 했죠. 양규는 한 달 사이에 7번을 싸워 많은 적군의 목을 베고 3만여 명의 포로를 구했습니다. 말과 낙타와 병장기를 노획한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죠.

그런데 애전이라는 곳에서 거란군 본대와 마주치는데요. 병력 차이가 10배 이상 났을 겁니다. 양규와 김숙흥은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웁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고 전투를 벌였을 수도 있고, 포로들을 구하다가 후퇴할 시점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32번-양규와 김숙흥의 전사.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중

결국 양규는 김숙흥과 함께 온종일 전투를 하다가, 화살을 온몸에 맞고 전사합니다. 거란군은 양규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말과 낙타, 무기도 거의 잃어버리고 말죠. 이때 큰비가 연일 내렸다고 합니다. 거란군은 비를 맞아가며 겨우 압록강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죠. 압록강을 건너 퇴각하다가, 흥화진사 정성의 이끄는 고려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흥화진사 정성(鄭成)이 추격하다가, 적군이 강을 반쯤 건너자 후미에서 공격하니 매우 많은 거란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 고려사 양규 열전

송나라 역사서인 <속자치통감장편>에는 이때의 전쟁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란의 귀족과 병사, 수레 중에 돌아온 것이 드물었다. 관리 들도 태반이 전사했다. 이에 조금이나마 글을 아는 사람까지 뽑아서 관리에 보충했다.”

- 속자치통감장편

거란 황제 야율용서는 이 실패를 만회하고자, 바로 고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고려를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33번-거란 서북로, 서남로 지도

거란의 ‘서북로’와 ‘서남로’ 등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거란의 ‘서북로’는 거란 상경(파림좌기)에서 ‘초원길’의 ‘카라코룸’까지를 관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조복(몽골 추정), 적렬, 오고 등 거란족과 다른 이민족들이 살았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거란의 ‘서남로’는 ‘비단길’의 일부로 북경(베이징)에서 둔황 쪽 길을 관장했습니다. 이곳에는 당항족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단위로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1010년 2차 침공 때, 거란은 적어도 수십만 필의 말을 끌고 왔습니다. 그 말들을 대부분 잃고 말죠. 거란 황제 야율용서는 바로 고려를 재침공하려고 했는데, 말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부족에서 무리하게 말을 징발하게 되고, 이 문제로 반란이 각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무려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34번-양규.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중에

양규가 일견 무리하게 보일 정도로 움직이며, 거란군에 심각한 타격을 주려고 한 것이 이런 이유였습니다. 양규는 뛰어난 용맹과 전술로, 거란이라는 나라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거란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

다. 양규는 거란군의 재침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고려가 회복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양규에게 당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고 1014년이 돼서야 비로소 고려를 재침할 수 있었죠.

거란은 고려를 7차례에 걸쳐서 침공합니다.

1차 침공-993년 소손녕의 침공-3번

2차 침공-1010년 거란 황제 야율용서의 침공-1번

3차 침공-1014년 소적렬의 침공-3번

4차 침공-1015년 야율세량의 침공-2번

5차 침공-1017년 소합탁의 침공-2번

6차 침공-1018년 소배압의 침공-2번

7차 침공-1023년 (야율)해령의 침공-3번

보통 거란의 2차 침공 후에 바로 구주대첩으로 이어지며 구주대첩을 3차 침공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바른 분류법이 아닙니다.

보통 귀주대첩이라고 발음하지만 저는 구주대첩이라고 칭합니다.

하여간 거란의 침공은 이렇게 분류해야 맞습니다. 7차 침공 같은 경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6차까지는 이렇게 분류해야 맞습니다.

3차 침공

1014년 10월부터 소적렬이 이끄는 거란군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3차 침공이죠. 도통을 임명하지 않은 원정이어서 6만가량의 기병들과 함께였습니다. 소손녕의 1차 침공과 같은 형태였죠. 2차 침공 때, 퇴각하는 와중에 압록강을 넘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이번 3차 침공의 목표는 압록강에 부교, 즉 떠있는 다리를 놓고, 압록강을 넘어 지금의 의주 지역에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거란군은 고려군의 방해에도 부교를 놓고 의주 지역에 성을 쌓아 보주라고 칭합니다.

4차 침공

4차 침공은 1015년 9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는 도통을 임명한 원정이었죠. 이 4차 침공 때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2차 침공 때 벌어진 삼수채 회전에 이후, 2번째로 곽주 서쪽에서 고려와 거란군의 주력군이 맞붙는 대회전이 벌어집니다. 이 회전에서 안타깝게도 고려군이 다시 패하며 수만 명이 전사합니다. 서희가 만든 서북면이라는 고려의 방패는 제 역할을 해주고 있었지만 고려의 창은 여전히 무뎠습니다.

고려는 또 한 번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회전에서 승리한 거란군은 여세를 몰아 남하할 수도 있었죠. 5년 전처럼 개경이 다시 거란군에 점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란군은 더 이상 남하하지 않고 퇴각했습니다. 거란군 총사령관 야율세량이 군영에서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요사에는 갑자기 병을 얻어 사망했다고 하지만, 전사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고려는 다행히도 숨을 돌리게 되죠.

5차 침공

5차 침공은 1017년 8월에 있었어요. 이때도 도통을 임명한 원정이었습니다. 거란군은 흥화진을 포위하고 공격했는데요. 그런데 흥화진의 고려군의 반격에 많은 사상자를 내고 겨우 9일 만에 퇴각하고 맙니다. 고려는 지금까지 거란의 침공 중에서 가장 손쉽게 막아냈습니다.

6차 침공

6차 침공이 바로 구주대첩입니다. 소배압이 도통이 되어 1019년 12월에 고려를 침공합니다. 고려 현종은 고려군의 총사령관으로 만70세의 노장 강감찬을 임명하는데요.

그런데 1010년부터 1018년까지 고려군 총사령관의 명칭은 ‘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령관이더라도 ‘서북면 도통’라고 명시해서 지휘 권한을 서북면으로 한정했습니다.

상원수(上元帥)

그런데 현종은 상원수(上元帥)라는 직을 신설해서 지역을 한정하지 않는 강력한 권한을 강감찬에게 몰아주었습니다. 강감찬은 서열을 파괴하고 비교적 젊은 관료들로 구성된 지휘부를 결성합니다. 2차 침공 때 서경을 지켜낸 강민첨과 조원 역시 포함됩니다.



#35번-흥화진. JTBC 평화전쟁 1019 중에

거란군의 주 침공 루트는 흥화진을 거치는 것이었죠. 모두 아시다시피 강감찬은 기상천외한 작전을 준비합니다. 흥화진 주위를 흐르는 삼교천 상류에 독을 쌓아 물을 막아 흥화진을 포위 공격하는 거란군에 역공을 가하는 것이었죠.

거란군이 다가오자 독을 터트리 매복해 있던 기병 1만2천 기를 출동시켜 거란군을 패배시켰는데요. 기상천외하고 절묘한 작전이기는 했지만 흥화진 쪽으로 온 거란군은 주력군이 아니었습니다.



#36번-거란군 진군로

소배압이 이끄는 주력군은 해안길로 오지 않고 길이 험한 내륙길로 들어왔습니다. 이 내륙길은 대관령이나 한계령 같은 엄청 험한 길이었습니다. 소배압이 굳이 이리로 들어온 것은 고려가 해안길의 방어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결과

적으로 옹알했습니다. 만일 소배압이 주력군을 이끌고 홍화진을 공격했다면 고려군의 수공에 대패를 당했을 것입니다.

강감찬 역시 주력군을 이끌고 안주로 즉시 남하했습니다. 고려군은 길이 좋은 해안도로를 따라 움직였으므로 거란군보다 이동이 훨씬 수월했죠.

거란군은 계속 남하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주에서 동북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서 결국 청천강을 넘고 말았습니다. 거란군이 1010년 이후 처음으로 청천강을 넘은 것이었죠.

고려의 군사들은 안주를 중심으로 한 청천강 이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즉시 추격할 것을 명령하죠.

드디어 부원수 강민첨의 부대가 서경 동북쪽 자주(慈州)에서 거란군 한 부대를 따라잡아 격파했고 조원이 이끄는 고려군은 서경 동쪽 마탄에서 1만이 넘는 거란군의 목을 베었습니다.

고려군은 이전과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동력과 야전에서의 전투 능력 모두 거란군을 능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무뎠던 중앙군, 즉 고려의 창이 드디어 예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거란의 주력군이 아니었습니다. 소배압이 이끄는 거란의 주력군은 서경(평양)을 동쪽으로 우회해서 남하했습니다.

강감찬은 결국 소배압이 개경으로 직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강감찬은 병마판관 김종현에게 1만 군사를 주어 선발대로 개경으로 보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전술을 준비해 놓고 있었고 그것을 가동시킨 것입니다.

강감찬의 명에 김종현은 행군속도를 두 배로 높여서 개경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37번-고려군과 거란군 이동로

또한 강감찬은 동북면에 명령을 내려서, 동북면 군사 3천 3백 명을 개경으로 보내게 합니다. 강감찬의 명령에 따라 고려 전역의 군사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지역을 한정하지 않는 전권을 가진 상원수를 임명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였죠.

마침내 1월 3일, 개경 북쪽 40km 지점인 신은현에 거란군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개경까지는 하루 여정에 불과한 거리였죠.

거란군이 개경 근처에 오자 현종은 청야 작전을 실시합니다.

소배압은 선봉군으로 기병 300을 개경 근처 금교역에 진입시키지만, 현종이 보낸 100명의 고려군에 모두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즈음 드디어 김종현이 1만 군사를 이끌고 개경에 도착했습니다.



#38번-거란군 기동로

결국 소배압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각하는 거란군을 고려군이 추격하기 시작했죠. 이제 선봉은 강감찬이 이끄는 부대였죠.

앞장서서 거란군을 추격하던 강감찬은 드디어 청천강 유역에서 거란군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5백 명 이상의 목을 베었습니다.

고려군이 추격해 오자, 소배압은 결정을 합니다. 고려군과 회전을 하기로... 소배압이 결정한 회전의 장소는 바로 구주 동쪽 별판이었습니다. 거란군은 매우 지쳤고 병력 손실도 있었지만 회전은 거란군의

장기였죠. 지금까지 벌어진 2번의 회전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구주성 동쪽 벌판에 두 나라 군대가 도열했습니다.



#39번-고려군과 거란군의 전투.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중에
이때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거란군이
바람의 방향에서 유리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고 한참동안 막상막하로 승패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
었습니다.



#40번-김종현 등장. JTBC 평화전쟁 1019 중에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개경으로 보냈던 병마판관 김종현이 1만 군사와 함께 전장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남풍이 불며 비바람이 거란군의 얼굴을 때립니다. 고려군이 그 기세를 타고 용기백배하여 격렬히 공격했습니다.

요사에서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군이 좁혀오며 활을 쏘다.

- 요사

팽팽하던 승부의 추는 이제 고려 쪽으로 완전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거란군 진영이 무너졌고 거란 군사들이 무질서한 패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매압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매압이 갑옷과 병장기를 버리고 도주했다. - 요사 소매압 열전

거란군 10만은 이 전투에서 대개 죽거나 사로잡혔습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이때까지의 패배를 모두 설욕하고도 남는 대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려군의 피해 상황은 어땠을까요? 고려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백부 등 173명이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전사했다.

- 고려사 1019년 3월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고려군의 피해는 겨우 173명이 전사한 것에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였죠. 서희가 만든 고려의 창이 드디어 제 역할을 한 것이었죠.

7차 침공

4년 후(1023년) 거란군이 한 번 더 침공하지만 고려는 아주 가볍게 막아냅니다. 이 이후에 드디어 거란군의 대규모 침공이 종식됩니다.

고려거란전쟁 기간 중에 양규와 강감찬 등 많은 고려의 장수들이 활약하여 거란군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양규와 강감찬 등이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서희가 만든 국가방어체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종이 사망하고 덕종, 정종, 문종 순으로 즉위를 하는데요. 모두 현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문종 때 고려는 최전성기를 맞습니다.

나라는 계속 부유해지고 모든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니, 태평성대였다.

- 고려사 문종 세가

또한 동북쪽 국경을 꾸준히 개척하여,

“서북쪽은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으나, 동북쪽은 고구려를 넘어섰다”

- 고려사 지리지 서문

라고 고려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민강좌

고종세 전쟁 따라잡기



일시 2024년 5~6월 14:00~16:00

장소 전쟁기념관 6·25전쟁 아카이브센터(2층)

문의 (일반) 02-748-1685 / (군) 900-1685

일정	강연주제	강연자 / 사회자
1강 5.29(수)	고대 세계전쟁이란 훈주천국시대의 전쟁	권중달(중앙대학교) / 김유석(전쟁기념관)
2강 6.5(수)	우리가 모르는 나당전쟁 이야기	이상훈(육군사관학교) / 신범규(군사편찬연구소)
3강 6.12(수)	전쟁의 재현 고려는 최강대국 커린을 어떻게 물리쳤나?	길승수(역사소설가) / 김유석(전쟁기념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기획 및 편집 정형아, 김윤미
- 강연자 권중달, 이상훈, 길승수
- 사회자 신범규, 김유석

본지에 실린 내용은 당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시민강좌 2024

고종세 전쟁
따라잡기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인쇄 국방출판지원단 M24110763

국군방첩지원부
www.dcc.mil.kr

“군인법 위반행위, 군사기밀 유출, 외국에의 정보 소문, 보안사고위반 신고는?”
국법없이 1337
언제 어디서나

신고유형
부고장/계명행 위반사고(인명)
외국통/방산 스톱이 군사기밀유출

상금내역
간행상: 간행료 20만원
특례 공판 신고: 최고 1억원

신고방법
전화 02-5494 국법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cc.mil.kr

국방 헬프콜 1303

병영생활 고충 상담
군범죄·성폭력 신고/상담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군·공중·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사이버 신고/상담은 **국방 헬프콜** **원격**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CITIZEN LECTURE

